



An Innovative Leap
towards Sustainable Voyages
지속가능한 항해, 혁신적 도약

BIPC 2025

제13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
13th Busan International Port Conference 2025

9.23. TUE ▶ 24. WED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BPEX)

프로그램북



목차

전체일정	04
------	----

기조연설

미래로 가는 항해: 혁신, 회복탄력성 그리고 글로벌 협력 엔스 마이어, 국제항만협회(IAPH) 총재 및 함부르크항만공사 사장	07
--	----

세션 1. 컨테이너 해운의 현재와 미래

일상이 된 격변: 해운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라스 안센, 베스푸치 마리타임 대표	09
슈퍼사이클의 균열과 반전: 컨테이너 해운시장은 어디로 가는가? 탄 후아주, 라이너리티카 대표	11
이응혁, 부산항만공사 국제물류지원실 실장	12

특별강연

신해양시대를 맞아 - 우리의 역할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명예총장	14
---	----

세션 2. 항만 혁신과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항만: 기술을 넘어, 신뢰와 연대로! 엔스 마이어, 국제항만협회(IAPH) 총재 및 함부르크항만공사 사장	17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 진 세로카, LA항만청 청장	19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 트랙: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22
글로벌 협력으로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항만 대니 레번스와르트, 로테르담항만공사 부문장	23
물류사의 생존 전략: 불확실성을 건디는 물류 완충지 구축 항규영, LX판토스 해운Pricing전략실장	25
팀 파워, 드류리 대표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특별세션

북극항로 시대, 부산항의 도전과 과제 **28**

김은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한국의 녹색해운항로 현안과 정책 과제 **29**

김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세션 3. 글로벌 항만 인프라 투자와 금융 솔루션

팀 파워, 드류리 대표 **31**

노엘 하세가바, 롱비치항만청 부청장 **32**

앨런 그레이, 센션트 포트 CEO 및 할리팩스항만청 전 청장 **33**

엔스 반 이퍼젤레, 아시아태평양(APAC) 운송·물류 담당 이사, ING은행 **34**

라제시 수브라마니안, 아시아태평양(APAC) 운송·물류 담당 디렉터, ING은행 **34**

류상민, 동아대학교 교수 **35**

예심 엘한 카알라르, 아시아개발은행 고문 **36**

세션 4. 해운항만 산업의 사이버보안

사이버 위기 대응: 시애틀항의 경험과 시사점 **38**

매트 브리드, 시애틀항만청 최고정보책임자(CIO)

기술 발전에 따른 컨테이너터미널의 사이버 보안 중요성 **40**

장원호, 부산신항국제터미널 운영/안전 대표

보이지 않는 방패: 시노트란스의 사이버 보안 전략 **41**

첸 가오, 시노트란스코리아슈핑(주) 사장 및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

이채민, (주)파이스소프트 대표이사 **43**

| 전체일정 |

DATE	TIME	PROGRAM
9.22.(Mon)	18:00-21:00	환영리셉션 (*초청대상 한정) *연사, 패널, 좌장 및 국외 참석자
9.23.(Tue)	09:30-10:10	개막식
	10:10-10:30	기조연설
	10:30-12:00	세션 1. 컨테이너 해운의 현재와 미래
	12:00-13:30	오찬
	13:30-13:50	특별강연
	13:50-14:00	커피 브레이크
	14:00-16:10	세션 2. 항만 혁신과 지속가능성
	16:10-16:30	커피 브레이크
	16:30-17: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특별세션
	18:00-21:00	친선만찬 (*초청대상 한정) *연사, 패널, 좌장 및 국외 참석자
9.24. (Wed)	09:30-10:40	세션 3. 글로벌 항만 인프라 투자와 금융 솔루션
	10:40-11:00	커피 브레이크
	11:00-12:20	세션 4. 해운항만 산업의 사이버보안
	12:20-13:20	오찬 (간편식)
	13:20-17:30	한국 전통문화체험 (*초청대상 한정) *연사, 패널, 좌장 및 국외 참석자
	18:00-20:00	비공식저녁이벤트 (*초청대상 한정) *연사, 패널, 좌장 및 국외 참석자

*컨퍼런스의 일정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사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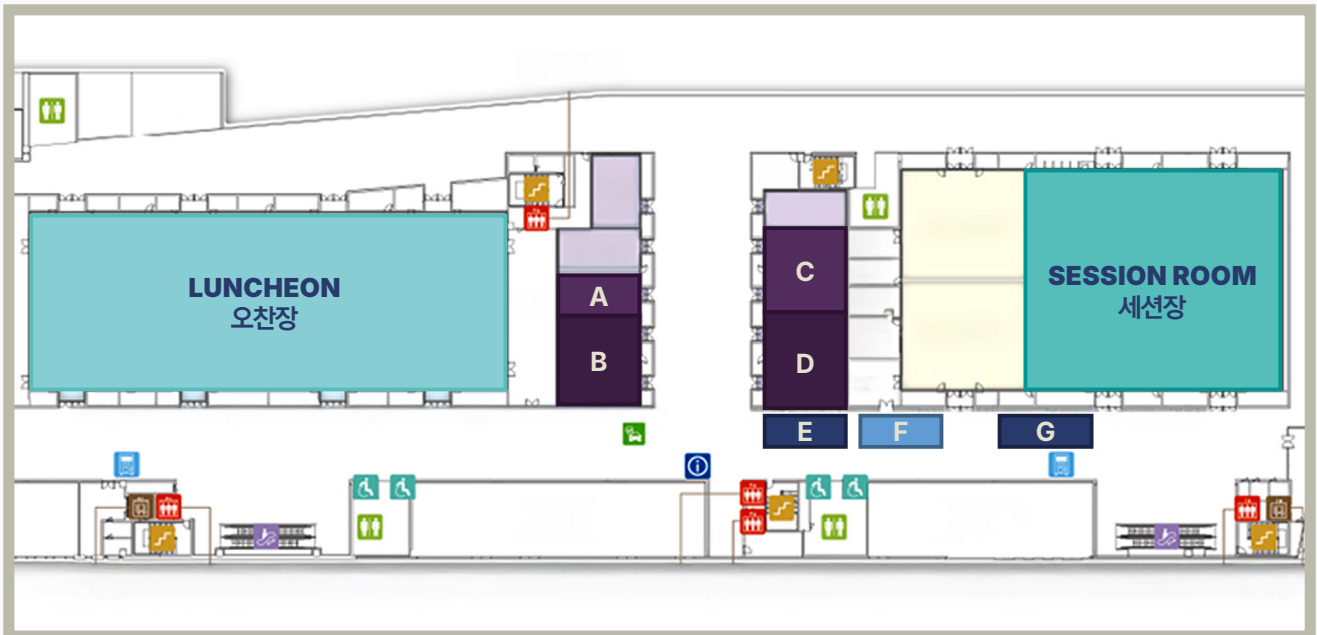
프로그램북



BIPC 2025 현장사진

• 행사장 배치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A 기자대기실

B 언론인터뷰

C 사무국

D VIP대기실

E 등록대

F 포토존

G 전시부스

지속가능한 항해,



혁신적 도약

기조연설





연사

엔스 마이어,
국제항만협회(IAPH) 총재 및 함부르크항만공사 사장

약력

엔스 마이어(59세)는 2008년부터 함부르크항만공사 사장을 맡고 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항만, 물류, 금융 및 IT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험을 쌓으며 해운업계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Fiege Holding, tts Group, Systematics AG (이후 EDS로 사명 변경), Software Design & Management AG (Ernst & Young Group)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다.

2019년 국제항만협회(IAPH) 유럽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4년 임기를 수행하며 아프리카 임시 부회장직을 겸임했다. 2023년 여름, IAPH 총재로 선출되어 같은 해 11월부터 재임 중이며 미래 해운 문제와 디지털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미디어에 폭넓은 영향력을 가진 연사로 활동하고 있다.

함부르크 정보학 포럼(Hamburger Informatik Forum e.V.) 창립 이사이자 다수의 감독 위원회와 이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함부르크 스포츠 클럽 (Hamburger Sport Verein e.V., HSV) 회장을 역임했다.

지속가능한 항해,



혁신적 도약

세션 1. 컨테이너 해운의 현재와 미래

일상이 된 격변: 해운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라스 안센, 베스푸치 마리타임 대표

슈퍼사이클의 균열과 반전: 컨테이너 해운시장은 어디로 가는가?
탄 후아주, 라이너리티카 대표

좌장
이응혁, 부산항만공사 국제물류지원실 실장





연사

라스안센, 베스푸치 마리타임 대표

약력

라스 안센은 베스푸치 마리타임 CEO이자 저명한 애널리스트, 전문가, 혁신 리더로 컨테이너 해운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Lloyd's List 선정 글로벌 해운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꼽혔다. 14년간 전 세계 고객들과 협업하며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해 왔으며 머스크에서 수석 애널리스트로 6년, 온라인 선사 Youship의 CEO로 1년, e-Commerce 포트폴리오 총괄 이사로 2년간 활동하는 등 총 12년간 재직했다.

현재 업계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수많은 변화, 그리고 선사, 터미널, 항만, 화주, 물류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예측한 「2025년 정기선 해운(Liner Shipping 2025)」을 저술했으며 레고 블록으로 만든 모델을 이용해 컨테이너 해운산업의 작동 원리를 가르치는 훈련 게임 LinerGame을 공동 설립하여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이다.

라스 안센은 1998년 코펜하겐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3년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해운산업의 격변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키워드: 컨테이너 해운

컨테이너 해운산업은 과거처럼 일시적 충격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대에 들어섰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연대 구도의 약화, 홍해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캄보디아 정세 불안은 단순한 물동량 변동을 넘어 무역 루트와 공급망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무역 성장세 둔화, 선박 과잉 문제, 공급망의 중국 중심 구조에서 베트남·인도 등지로의 이동, IMO 규제 강화와 친환경 연료 전환 압력,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확산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도전은 항만과 선사 모두에게 전례 없는 전략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단일한 전망이나 예측에 의존할 수 없으며, 복수의 시나리오별 대응 옵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는 세 가지다. 첫째, 화물 흐름의 가시성(visibility)을 강화해 공급망 충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을 갖춰야 한다. 셋째, 단일 기업이나 항만 차원을 넘어서는 업계 전반의 긴밀한 협력(collaboration)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불확실성의 파고 속에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준비와 협력을 강화한다면, 해운·항만 산업은 오히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연사

탄 후아주, 라이너리티카 대표

약력

탄 후아주대표는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시장 리서치 및 정보 플랫폼인 라이너리티카의 공동 설립자이다. 1995년 컨테이너 해운산업에 투신한 이후 주요 컨테이너 선사, 컨테이너 임대기업, 컨테이너 선주, 정기선 시장 리서치 기업에서 고위직을 역임했다.

2009년 Alphaliner 주간 보고서와 월간 보고서를 창간하고 2020년까지 편집자로 활동했다.

1995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 철학, 경제학 학사 학위를, 2004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컨테이너 해운시장 전망

키워드 : 컨테이너 해운

컨테이너 해운시장은 현재 상반된 지표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국면에 놓여 있다. 6월 초 이후 태평양 횡단 운임은 60% 이상 하락했지만, 용선료와 중고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조 발주는 계속 이어져 발주·인도 물량이 기존 선대의 약 31%에 달한다. 운임의 급락과 자산·발주의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괴리는 시장의 방향성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나는 이번 발표에서 항만, 선사, 조선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시장을 점검하였다. 터미널은 물류보다 안정적인 수익원으로서 매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팬데믹 동안의 초호황은 점차 정상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사 간의 수익 격차는 여전히 커서 선복 조정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 잔량은 15년 만의 최고치에 달했고, 교역 둔화와 제한적인 해체 속도는 공급 과잉 위험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 화물 물동량은 관세에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미·중 디커플링은 지속되지만 아시아 대부분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발주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USTR 301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는 컨테이너 해운시장이 앞으로도 높은 불확실성과 구조적 불균형 속에 놓일 것임을 강조하며, 업계가 회복탄력성과 유연한 전략, 그리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좌장

이응혁, 부산항만공사 국제물류지원실 실장

약력

이응혁 실장(1976년생)은 2018년부터 부산항만공사 국제물류지원실장으로 재직해왔다.

11살된 쌍둥이 아들의 아버지이며 2005년 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하여 마케팅, 물류기획, 국제협력, 해외사업개발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항만물류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왔다.

컨테이너 항만 및 물류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항만협회(IAPH) 중간이사회(시드니, 2014), 유럽항만기구(ESPO) 회의(스웨덴 예테보리, 2014), 국제물류협회(FIATA) 세계대회(부산, 2022) 등 주요 국제회의에 연사로 참여했다.

제8차 항만당국 라운드테이블(상하이, 2023년 9월)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컨테이너 해운 변화와 항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제9차 항만당국 라운드테이블(바르셀로나, 2024년 9월)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니어쇼어링과 생산 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응혁 실장은 2023년 2월부터 지역 일간지인 부산일보에 다음의 주제로 분기별 칼럼을 기고해왔다.

- 일본 컨테이너 물류에서 부산항의 역할
- 물류에서 공(空)컨테이너의 역할과 인식
- 컨테이너선 대형화의 한계와 함의
- 항만 디지털화의 도전 과제
- 제2차 글로벌 물류 위기의 위험
- 해운·항만 용어의 복잡성
- 미국 내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의 부재
- 항만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 니어쇼어링 트렌드와 글로벌 공급망 혼란

고려대학교에 입학해 건축공학을 수료하고 2003년 동 대학에서 영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5년에는 런던 소재 카스 비즈니스 스쿨(Cass Business School)에서 해운, 무역 및 금융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해운경제와 글로벌 무역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어 2019년 12월에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항만운영·관리 박사과정을 모두 이수하며 전문성과 학문적 발전에 대한 한결 같은 결의와 헌신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지속가능한 항해,



혁신적 도약

특별강연





연사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명예총장

약력

임기택 명예총장(1956년생)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항해학(1977년)을 전공했으며, 이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1990년), 스웨덴 세계해사대학에서 해사행정학 석사(1991년)를 취득하였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 박사과정(국제법)을 수료하였다.

그는 1985년 해운항만청 선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에서 27년간 근무하며 선박안전, 해사행정, 국제해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기간 동안 국무총리실 중앙안전통제단 파견, 주영국 국제해사기구(IMO) 상주대표, 해양수산부 대변인, 주영국 대사관 해양수산관·국토해양관(국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1급)으로 재직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으로 선출·연임하여 총 8년간 글로벌 해사정책을 이끌었다.

임 명예사무총장은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IMO 협약준수전문위 의장,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의장 등 주요 직책을 수행하였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싱가포르 대통령으로부터 국제 공공서비스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국제해사기구(IMO) 명예총장으로 전세계 해사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자문 및 회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 해사 및 항만 분야의 협회와 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신해양시대를 맞아-우리의 역할

1. 해양의 중요성

해양은 지구 표면의 72% 이상을 차지하며,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산소의 절반을 생산하고, 인류 활동으로 발생하는 열의 90% 이상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을 통해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하고, 크루즈·레저 산업 등 다양한 휴식처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산호초의 90% 이상이 소실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은 매년 1.5조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2030년에는 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2. 세계 해상물동량 및 국제해운선대

2024년 해상물동량은 12,629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흑해와 홍해의 지정학적 긴장은 수에즈 운하 운항을 제한하는 등 해상물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선대 규모는 2005년 대비 약 2.5배 성장했으며,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이 조선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해운·조선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이, 싱가포르, Ningbo-Zhuoshan, 부산 등 주요 항만은 글로벌 물류 흐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IMO와 국제적 도전과제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안전과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을 제정·개정하는 UN 전문기구입니다. 현재 IMO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탈탄소화와 디지털화입니다. 2023년 IMO는 2050년경까지 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2040년까지 최소 70~80%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단계 목표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MASS) Code 제정, E-Navigation, 해사 사이버보안 지침 마련 등 디지털 전환 역시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4. 북극항로 시대와 부울경의 역할

기후변화로 북동항로(NSR)는 2030년대 중반이면 연중 7-9개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의 항로는 최대 10-15일 단축되어 연료비와 탄소배출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항만은 세계공급망의 병참기지로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한국의 역할: 글로벌 협력과 협업

세계 기후 변화 대응은 1개 국가 또는 지역에 국한되는 과제가 아닌 범지구적인 인류 공영의 과제입니다. 신해양시대를 맞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해양과 Blue Economy를 위해 대한민국은 모든 국가들과 함께 협력과 협업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항해,

혁신적 도약

세션 2. 항만 혁신과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항만: 기술을 넘어, 신뢰와 연대로!

옌스 마이어, 국제항만협회(IAPH) 총재 및 함부르크항만공사 사장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

진 세로카, LA항만청 청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 트랙: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글로벌 협력으로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항만

대니 레번스와르트, 로테르담항만공사 부문장

물류사의 생존 전략: 불확실성을 건디는 물류 완충지 구축

황규영, LX판토스 해운Pricing전략실장

좌장

팀 파워, 드류리 대표





연사

엔스 마이어,
국제항만협회(IAPH) 총재 및 함부르크항만공사 사장

약력

엔스 마이어(59세)는 2008년부터 함부르크항만공사 사장을 맡고 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항만, 물류, 금융 및 IT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험을 쌓으며 해운업계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Fiege Holding, tts Group, Systematics AG (이후 EDS로 사명 변경), Software Design & Management AG (Ernst & Young Group)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다.

2019년 국제항만협회(IAPH) 유럽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4년 임기를 수행하며 아프리카 임시 부회장직을 겸임했다. 2023년 여름, IAPH 총재로 선출되어 같은 해 11월부터 재임 중이며 미래 해운 문제와 디지털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미디어에 폭넓은 영향력을 가진 연사로 활동하고 있다.

함부르크 정보학 포럼(Hamburger Informatik Forum e.V.) 창립 이사이자 다수의 감독 위원회와 이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함부르크 스포츠 클럽 (Hamburger Sport Verein e.V., HSV) 회장을 역임했다.

친환경 미래를 위한 협력

키워드: 국제 협력, 공동 책임,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회복력, 녹색 회랑

보다 청정한 미래를 위해서는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무역과 산업의 관문인 항만은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의 최전선에 서 있다. 보다 친환경적이고 회복력 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별적 행동이 아닌, 전지구적 협력이 필요하다.

엔스 마이어는 항만, 공급망 관계자, 정책 입안자 간 고도의 협력적 접근을 통해 기후 중립과 디지털 역량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한다. 사이버 보안에서 수소 인프라, 녹색 회랑에서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까지, 오늘날의 복잡한 과제들은 국경과 산업을 넘어선 전략적 사고와 협력을 요구한다. 항만 당국은 항만 운영의 탈탄소화뿐 아니라 확장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육상 전력 공급 시설 구축, 친환경 연료 지원, 데이터 보안 확보 등 미래 항만의 기술적 토대는 개방성, 회복력,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청정한 미래를 위해서는 신뢰, 방향의 일치, 결의가 필요하다.

- 대형 글로벌 허브항뿐 아니라 소규모 지역 항만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지식 공유, 기준 통일,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가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진정한 진전을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

- 함부르크항과 국제 파트너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세션에서는 협력적 기후 및 혁신 전략의 예시를 제시하고 항만이 협력을 통해 비전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사

진 세로카, LA항만청 청장

약력

진 세로카는 북미 최대 컨테이너 항인 LA항만청장이다.

세로카청장이 2014년 6월 LA 시의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 이래, LA항은 거듭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다수의 최고 월간, 분기 화물 실적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2021년 6월 서반구 최초로 연간 1,000만 TEU 처리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2021년 5월 100만 TEU를 처리하는 이정표도 달성했다.

세로카 청장은 전 세계 항만 고객, 산업 파트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선출 및 임명직 공무원, 재계 리더, 지역 사회 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존경 받는 국제 무역 전문가로서 미국 수출기업과 제조기업에 혜택을 주는 규칙 기반 무역협정을 적극 옹호해왔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해운, 글로벌 물류, 경영 분야 전반에서 인정받았으며 2024년에는 LA Times 선정 "L.A. Influential" 시리즈에 이름을 올리며 LA의 대표적 지도자로 주목받았다.

2023년에는 세계 무역 산업에 대한 기여와 미국 최대 컨테이너 항인 LA항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LA 상공회의소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스탠리 T. 올라프슨 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아시아계 미국인 건축·엔지니어 협회장상도 수상했다.

2021년에는 해운업계 최고 영예 중 하나인 컨테이너화·복합운송연구소의 코니 상을 수상했고 공급망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 받아 Lloyd's List 선정 세계 해운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인 랜드 엠파이어 경제협의회 평생공로상을 수상하며 수십 년간의 공급망·물류·해운 분야 리더십과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0년에는 팬데믹 기간에 보여준 리더십을 인정 받아 Supply Chain Dive 선정 올해의 경영자로 뽑혔고 2016년부터 매년 LA Business Journal이 발표하는 LA500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LA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최대 항만의 수장으로 2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며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교역 증대와 함께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이끌고 있다.

세로카 청장 취임 이후 LA항은 화물 흐름의 신뢰성·예측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세로카 청장은 항만 분야 최초의 디지털 정보 포털인 Port Optimizer™ 구축을 총괄했으며 전 세계 항만들이 공급망 데이터와 분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또한 향후 10년 내 무배출 화물 장비와 대형 화물 트럭을 도입하는 원대한 목표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일본·싱가포르·베트남과 국제 그린·디지털 해운 회랑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세로카청장의 리더십 하에 LA항은 2015년 공공 접근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공익형 수변 인프라 조성에 2억 3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다. 또한 West Harbor와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LA 워터프론트를 따라 대규모 리테일·식당가를 조성하는 개발 프로젝트 등 수많은 지역사회 친화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청장 임기 중에 무역대표부 정부간 정책자문위원회, 상무부 공급망 경쟁력 자문위원회, 해사청 해상운송시스템 국가자문위원회, 연방해사위원회 공급망 혁신팀, 교통부 산하 항만 성과통계 작업반 등 다섯 개의 미 연방정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화물 이동과 공급망 최적화를 위한 정책을 자문했다.

또한 해운물류산업 내 인재양성과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LA항과 롱비치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해운물류교육 캠퍼스(Goods Movement Training Campus)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 동 캠퍼스는 해운물류 인력의 유치·채용·유지를 위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제항만협회 북미지역 부회장, 알라메다 회랑 교통청 이사회 이사, LA상공회의소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USC 글로벌 공급망 연구소 경영위원회 의장, 노스웨스턴대학교 교통센터 경영자문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다.

1988년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APL) 신시내티 사무소 영업지원 업무를 시작으로 해운업계에 투신했으며 이후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주요 지점을 거쳐 2010년 미국으로 복귀해 APL 미주 지역 사장으로 1,000명의 직원을 이끌며 상업·터미널·내륙운송·노무관리 등 정기선 사업을 총괄했다.

University of New Orleans에서 마케팅 학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

LA항은 그간 오염 저감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온 다양한 환경 이니셔티브를 통해 모든 형태의 배출가스를 대폭 감축했으며 특히 2005년 대비 디젤 미세먼지는 91%, 황산화물은 98%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같은 기간 물동량은 15% 증가했다. 최근 발간된 LA항 대기배출 보고서는 현재 LA항의 오염물질 배출이 최근 2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경제 성장과 환경적 책무 이행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과는 샌페드로만 항만단지 전체와 공급망 파트너들이 함께 이룬 공동의 성취이다.

오염물질 배출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도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길이다. 지주항의 성격을 가진 LA항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장비를 직접 보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사, 터미널 운영사, 트럭 운송업체, 철도 운영사가 최첨단 친환경 장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LA항은 무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터미널 전력 수용능력을 강화해 무배출 하역 장비 도입을 촉진하고 배터리 전기 트럭 구매와 충전소 설치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항만 수소 허브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무배출 장비의 운용·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해운물류 교육 캠퍼스를 건립하고 전 세계 항만들과 녹색 해운 회랑을 구축하여 해운산업의 선박 부문 탈탄소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혁신, 파트너십, 창의적 해법을 통해 LA항은 전 세계 항만들과 함께 화석연료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다.



연사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약력

송상근 사장은 1968년 경남 함안 태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운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동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외교부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25년 2월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명 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한국 해양정책과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를 총괄했으며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수산부 대변인을 역임하며 항만발전, 해양환경 정책, 국제해양협력을 담당했다.

부산항만공사 취임 이후 항만발전 전략에 역점을 두고 선도적 글로벌 물류거점 부산항의 위상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연사

대니 레번스와르트, 로테르담항만공사 부문장

약력

대니 레번스와르트(57세)는 로테르담항만공사의 상업총괄부문장으로 1992년 로테르담항만공사에 입사했다. 음악 산업에 종사했으며 항만공사 인사 부서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 이후 상업 부문에 합류했다. 상업 부문에서 건화물 및 액화 벌크 해운 섹터를 위한 체계적인 계정 관리를 도입했으며 로테르담 크루즈 해운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산업 및 벌크 사업 개발 매니저, 해운 선임 비즈니스 매니저 등 상업 부문에서 다양한 보직을 역임했으며 2016년 4월부터 브레이크벌크 부서 총괄로 인프라 투자, 상업 개발, 정책 자문을 중심으로 (북서) 유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항만이 되고자 하는 로테르담항만공사의 비전에 기여하고 있다.

Rotterdam School of Economics에서 경영, 경제, 법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 퐁텐블로 소재 INSEAD에서 경영자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글로벌 협력으로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항만

키워드: 지속가능성, 항만 효율성, 혁신, 디지털화

로테르담항만공사는 더욱 스마트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항만 구축을 위한 방법들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혁신 기술과 인프라는 현재 로테르담 항이 추진 중인 주요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수많은 시장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로테르담 항은 디지털 톨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발 및 추진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항만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항만으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국제 공급망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로테르담항만공사는 탄소 중립 페이퍼리스 무역로 달성을 위해 여타항만 및 시장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 대니 레번스와르트는 내일의 지속가능한 항만 구축을 위한 로테르담 항의 여정을 공유한다.



연사

황규영, LX판토스 해운Pricing전략실장

약력

황규영 실장(1983년생)은 2017년 LX판토스에 합류하여 현재 해운Pricing전략실을 이끌고 있다. 산하 해운마케팅전략팀, 해운ME분석팀을 통해 정량 데이터 분석 기반 해운Pricing전략, 시황 분석 및 예측을 이끌고 있다. 국내외 주요 컨퍼런스 연사 및 매체 기고, 대학 강의 등 활동도 하고 있다.

LX판토스는 연간 160만TEU를 운송하는 국내 1위이자 글로벌 7위 포워더로서, 특히 팬데믹 이후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장에서 탁월한 대응 능력을 통해 화주사의 신뢰를 얻었으며, Visibility 시스템 구축, ESG 경영 실천, 물류시설 투자 확대 등 해운물류시장에서 선도적 행보를 보이는 물류사이다.

황규영 실장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진해운에서 아시아 터미널 협상, Market Intelligence 업무를 수행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Aalto University Executive MBA(2025)를 전공하였다.

공급망 대전환 시대 물류사의 새로운 도전: 변동성 심화와 물류시설 투자를 통한 대응 전략

키워드: 공급망 대전환, 불확실성, 포워더, 물류시설투자, 터미널, 완충지대

팬데믹 이후 해운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물류사는 기존 'BUY LOW, SELL HIGH' 모델의 한계에 직면했다.

팬데믹, 홍해대란, 트럼프 관세를 경험하며 해운시장 운임이 상향 평준화되었고, 화주 요구사항도 비용에서 서비스 품질, 대응 능력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팬데믹 이후 해운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조명하고 물류사들의 경영환경 난제를 제시한다.

대응책으로 업계내에서 시도되는 방안을 소개하고, 물류시설 투자 사례를 통한 완충지대 구축 전략을 제안한다. 물류사가 단순 중개업에서 통합 물류 솔루션 제공자로 전환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물류시설 투자를 통한 안정성 확보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좌장

팀 파워, 드류리 대표

약력

팀 파워는 드류리 대표로 30년 이상 해운업에 종사해왔다. P&O Containers에서 컨테이너 물류, 무역로 관리, 공급망 관리, 회송 등을 담당했으며 1998년 컨테이너 인수도를 위한 B2B 거래소 InterBox를 개발한 International Asset Systems 스타트업 팀에 합류했다. 2001년 전자상거래, 공급망 엔지니어링, 컨테이너 물류 전문 기업을 설립했으며 2004년 11월 컨설팅 부문 총괄로 드류리에 합류하여 정부 정책, 항만 개발 전략, 본사 전략, 실사 등 모든 해양 관련 부문을 아우르며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고 2016년 사장으로 취임했다.

Oxford University에서 생화학으로 학사학위를, Warwick Business School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속가능한 항해,



혁신적 도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특별세션

북극항로 시대, 부산항의 도전과 과제

김은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한국의 녹색해운항로 현안과 정책 과제

김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연사

김은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약력

김은우 실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산업연구실장과 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 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해운, 항만, 국제물류 분야에서 약 20년간 연구 경력을 쌓아왔으며, 현재는 주로 항만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7-2018년에는 런던 Cass Business School에서 방문학자로 활동했으며, 2020-2023년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일반대표를 역임했다.

북극항로 시대, 부산항의 도전과 과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 지역의 해빙 가속화는 북극항로의 활성화를 불가피한 미래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산항에 있어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중요한 기회로 작용한다. 이에 부산항은 단순한 하역 공간을 넘어, 선박의 입항부터 하역·보관·급유·수리·선용품 공급, 인력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가 뒷받침될 때 부산항은 북극항로 시대에 글로벌 해양물류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한층 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사

김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약력

김가현 박사(1987년생)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운경영을 전공하고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18년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항만연구본부 항만산업실에서 녹색해운항로, 항만 보안/안전 및 항만 인력, 항만분야 국제협력, 항만배후단지 공공성 확보 등 항만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탐구하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의 녹색해운항로 현안과 정책

키워드: 녹색해운항로, 온실가스감축, 친환경연료, 녹색해운항로전략항만

최근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IMO 는 2050년 순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단계적 감축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이니셔티브는 2022년 22건에서 2024년 초 57건으로 급증하는 등 국제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산-시애틀 항로를 비롯해 호주, 싱가포르, 덴마크 등과 협력하며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연료의 높은 비용, 병커링 및 저장시설 부족, 기술 및 안전 규제의 미비, 대·중소 선사 간 격차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연료 전환과 인프라 투자, 국제표준 대응에 필요한 장기적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종합 지원체계와 다층적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녹색해운 전환을 위한 법제화, 자원 확보와 기금 조성,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혁신기술 실증, 글로벌 협력 얼라이언스 구축, 그리고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이 핵심 해법으로 제시된다.

본 발표는 이러한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해운의 탈탄소 전환 방향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항해,



혁신적 도약

세션 3. 글로벌 항만 인프라 투자와 금융 솔루션

팀 파워, 드류리 대표

노엘 하세가바, 롱비치항만청 부청장

앨런 그레이, 센션트 포트 CEO 및 할리팩스항만청 전 청장

엔스 반 이퍼젤레,

아시아태평양(APAC) 운송·물류 담당 이사, ING은행

라제시 수브라마니안,

아시아태평양(APAC) 운송·물류 담당 디렉터, ING은행

류상민, 동아대학교 교수

예심 옐한 카알라르, 아시아개발은행 고문





연사

팀 파워, 드류리 대표

약력

팀 파워는 드류리 대표로 30년 이상 해운업에 종사해왔다. P&O Containers에서 컨테이너 물류, 무역로 관리, 공급망 관리, 회송 등을 담당했으며 1998년 컨테이너 인수도를 위한 B2B 거래소 InterBox를 개발한 International Asset Systems 스타트업 팀에 합류했다. 2001년 전자상거래, 공급망 엔지니어링, 컨테이너 물류 전문 기업을 설립했으며 2004년 11월 컨설팅 부문 총괄로 드류리에 합류하여 정부 정책, 항만 개발 전략, 본사 전략, 실사 등 모든 해양 관련 부문을 아우르며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고 2016년 사장으로 취임했다.

Oxford University에서 생화학으로 학사학위를, Warwick Business School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항만 비즈니스 환경과 파이낸싱에의 함의

키워드: 안정적, 장기, 에너지 전환의 도전과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만은 글로벌 무역과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다. 항만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이며 일반적으로 전체 공급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항만산업은 국가와 민간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이 두드러지며 진입 장벽이 높고 지역적 과점이 형성되고 대체적으로 장기 수익이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경제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금융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인프라 펀드와 연기금이 항만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

현재의 지정학적 격변과 무역 패턴의 변화는 항만산업에 기회와 리스크를 모두 제시한다. 항만 산업은 이러한 환경을 신중하게 탐색하고 헤쳐 나가야 한다.

항만산업의 탈탄소화로 또 다른 차원의 투자 도전과제가 발생한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 논거가 항상 매력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항만산업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금융에 있어 국제 협력을 포함한 명료하고 일관된 규제 환경이 필수적이다.



연사

노엘 하세가바, 롱비치항만청 부청장

약력

노엘 하세가바는 북미 2대 컨테이너 항만인 롱비치 항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상업 서비스, 엔지니어링, 재무 및 총무, 인사, 기획 및 환경 업무, 전략적 옹호 활동을 비롯한 항만의 일반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원활한 화물 수송을 위한 항만의 비즈니스 회복 T/F를 총괄하고 산업계, 노조, 정부 파트너들과 공조하며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한 롱비치 항의 대응을 주도했다. 또한 종단간 가시성 및 해안간 연결성을 구현하여 상품 이동의 가시성 부족을 해소하고 데이터 공유를 도모하기 위한 롱비치 항의 디지털 이니셔티브 '공급망 정보 고속도로'를 이끌고 있다. 하세가바 부청장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아우르며 26년 이상의 업력을 쌓았으며 롱비치 항 합류 전에는 포춘 500대 기업에서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관리했다.

USC에서 경제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영학 학사와 기획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 University of La Verne에서 공공행정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인 항만 전문가(CPE)로 미국항만협회(AAPA)의 항만 전문 임원(PPX) 및 항만 전문 관리자(PPM) 자격을 취득했다.

미국 관문 및 무역 회랑 연합 이사회 부의장, USC 켄드릭 글로벌 공급망 연구소 이사회 의장, AAPA 전문계발 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북미 복합운송협회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또한 남캘리포니아 해양 거래소, 컨테이너화 및 복합운송 연구소, 덴버 대학교 운송 공급망 연구소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해운항만임원협회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다.



연사

앨런 그레이, 센션트 포트 CEO 및 할리팩스항만청 전 청장

약력

앨런 그레이는 현재 센션트 허브 자회사인 센션트 포트 CEO로 풍부한 글로벌 산업 경험과 노련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2019년 11월부터 캐나다 할리팩스 항만청 청장 겸 CEO를 역임하며 화물·크루즈·부동산 등 항만의 핵심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번영을 견인했으며 디지털 전환, 탈탄소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사회·경제·환경 간 균형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레이 전 청장의 재임기간 동안 할리팩스 항만청은 50년 장기 비전 계획을 비롯해 캐나다 최초의 운송 및 공급망 부문 리빙랩인 더 피어 개발 등 다수의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할리팩스 항만청과 파트너 기관들은 2023년 국제항만협회가 수여한 디지털화 부문 지속가능성상을 수상했고 할리팩스 항만의 페어뷰 코브에 위치한 해상 컨테이너 검사 시설은 캐나다 최초로 엔비전 V3 인증 프로젝트로 인정받았다.

해운업에 투신한 이래 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할리팩스 항만청장 취임 전에는 호주 프리맨틀 항만 총괄 매니저로 근무했으며 2008년 9월 항만감독관, 2009년 7월 항만운영 총괄 매니저로 임명되어 상업 운영 및 벌크 사업을 총괄했다. 또한 20여 년간 로로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LPG 운반선 등 다양한 선박을 운항하며 광범위한 항해 경력을 쌓았다.

2013년 호주 선장협회에서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종신회원으로 추대되었으며 캐나다에서 공급업체 다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리더십을 인정 받았다. 또한 캐나다 원주민 및 소수민족 공급업체 협의회 이사회 멤버로 활동했고 할리팩스 항만과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항만 커뮤니티 협의회 of the 당연직 위원을 맡았다. 캐나다 항만청협회 이사회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광범위한 글로벌 산업 경험과 원로로서의 위상은 센션트 포트의 성공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항만 운영과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선도해 온 그레이 선장의 비전과 리더십, 검증된 업적을 바탕으로 센션트 포트는 해운 및 항만 산업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다.



엔스 반 이퍼젤레,
아시아태평양(APAC) 운송·물류 담당 이사, ING은행

약력

엔스 반 이퍼젤레는 아시아태평양과 남아시아 지역에서 ING의 해운 고객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15년 간 천연자원, 운송, 인프라 산업에서 파이낸싱 구조와 및 주관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따라 기업 금융, 차입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를 진행했다. 벨기에 Solvay Business School (Vrije Universiteit Brussel)에서 경영과학 이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라제시 수브라마니안,
아시아태평양(APAC) 운송·물류 담당 디렉터, ING은행

약력

라제시 수브라마니안은 2022년 ING의 운송물류산업 총괄팀에 합류했다. 해운에너지전환 선임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탈탄소화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ING의 글로벌 해운 대출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기후 연계를 총괄하고 있다. 20여 년의 해운산업 경력을 바탕으로 ING 글로벌팀과 협력하여 해운 금융 활동 의사결정에 지속가능성 목표를 통합하고 있으며 해운 고객들과 소통하며 고객의 전환 계획을 파악하고 ING가 고객의 진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포세이돈 원칙 운영위원회에 ING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으며 동 원칙 기술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패널

류상민, 동아대학교 교수

약력

류상민 교수는 국제 경제 및 금융 협력, 외교, 국가 예산 기획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탁월한 공공정책 및 경제 전문가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정부 고위직과 다자기구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거시경제 전략, 개발 금융, G20 협력, 한국의 글로벌 파트너십 증진에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경력 사항

- 양자 및 다자 경제협력, 복지예산 편성, 경제 정책, 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30년 이상 공직 생활
- 기재부 대외경제국 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역임
- 한국의 G20 의장국 활동과 ADB와의 협력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
- 주 LA총영사관 부총영사, 워싱턴 D.C. 재경참사관으로 경제외교 추진
- 글로벌 금융기관 및 기술협력 사업에서 한국의 위상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이니셔티브 주도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0)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 (1992)
-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법학석사 (2008)



좌장

예심 엘한 카알라르, 아시아개발은행 고문

약력

예심 엘한 카알라르 박사는 개발 섹터와 학계에서 32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이코노미스트이다.

현재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실 전문 고문으로 국제개발 분야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인프라 및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31개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아태지역이 당면한 주요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및 정책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해운·항만, 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을 제시하며 이론적 경제 연구와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개발 전략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경력은 지속가능한 경제적 해법을 도출하고 다양한 글로벌 맥락 속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엘한 카알라르 박사의 깊은 헌신을 잘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 대학, 미시간 대학, 싱가포르 국립 대학에서 금융 및 경영 과정을 이수했다.

지속가능한 항해,



혁신적 도약

세션 4. 해운항만 산업의 사이버보안

사이버 위기 대응: 시애틀항의 경험과 시사점

매트 브리드, 시애틀항만청 최고정보책임자(CIO)

기술 발전에 따른 컨테이너터미널의 사이버 보안 중요성

장원호, 부산신항국제터미널 운영/안전 대표

보이지 않는 방패: 시노트란스의 사이버 보안 전략

첸 가오, 시노트란스코리아슈핑(주) 사장 및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

좌장

이채민, (주)파이스소프트 대표이사





연사

매트 브리드, 시애틀항만청 최고정보책임자(CIO)

약력

1911년, 주민 투표를 통해 특수 목적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시애틀항만청의 사명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고 환경 책임성 있는 방식으로 무역, 여행, 상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회와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이다.

시애틀항의 주요 사업 분야는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SEA), 공공 마리나를 통한 상업 어업 및 레저선 운영, 크루즈, 타코마항과의 협력을 통한 해상 화물 (노스웨스트 시포트 얼라이언스)이다. 2023년 기준 시애틀항의 경제적 기여는 일자리 204,500개 이상, 보수 총 126억 달러, 기업 생산 약 390억 달러로 추산된다.

매트 브리드는 2003년 11월,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담당 이사로 시애틀항 및 SEA에 합류하여 시애틀항 IT 부서와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총괄하는 경영진의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 가을, CIO로 임명됐다.

신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에 대한 강한 열정을 바탕으로 시애틀항의 다양한 사업군에 강건하고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부서를 총괄하고 있다.

30년 이상 IT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시애틀항 합류 전에는 기술 스타트업 및 중견 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에서 근무했다.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심리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시애틀항만청에 대한 최근의 사이버 공격에서 얻은 교훈

1911년, 주민 투표를 통해 특수 목적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시애틀 항만청의 사명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고 환경 책임성 있는 방식으로 무역, 여행, 상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회와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이다.

시애틀항의 주요 사업 분야는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SEA), 공공 마리나를 통한 상업 어업 및 레저선 운영, 크루즈, 타코마항과의 협력을 통한 해상 화물 (노스웨스트 시포트 얼라이언스)이다. 2023년 기준 시애틀항의 경제적 기여는 일자리 204,500개 이상, 보수 총 126억 달러, 기업 생산 약 390억 달러로 추산된다.

2024년 8월 24일, 시애틀 항만청은 사이버 공격으로 추정되는 시스템 장애를 확인했다.

항만청은 즉시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했고 주요 시스템을 격리하고 일부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한 뒤, 외부 전문가와 연방 기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안전하게 복구 및 점검 작업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금번 사고가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의 항공 안전 운항이나 항만 시설의 안전한 이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요 항공사 및 크루즈 선사의 자체 시스템은 물론 연방항공청, 교통안전청, 미 세관국경보호청과 같은 연방 파트너 기관의 시스템 또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사이버 보안 및 기술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사고 원인과 영향을 받은 데이터 및 이해관계자를 조사하는 조사가 즉시 개시됐다. 시애틀 항만청은 관계 당사자와 사법 당국에 통지하고 시스템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세션에서 발제자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항만청의 신속한 초기 대응, 더욱 견고한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노력, 다른 항만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을 공유한다.



연사

장원호, 부산신항국제터미널 운영/안전 대표

약력

부산신항국제터미널 장원호(1970년생) 운영/안전 대표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전자계산학(1998년, 공학석사)을, 국립부경대학교에서 경영학(2018년 경영학석사)을 전공하였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현대정보기술, 한국허치슨터미널 및 현대유엔아이에서 IT 전문가로 근무하였으며, 10년 이상 터미널 운영 시스템(TOS) 개발과 터미널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8년부터 PSA Korea에 합류하여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부산신항국제터미널(PNIT) 그리고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부산신항만(HPNT)에서 IT 개발과 운영/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재직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2025년 초까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부산신항국제터미널의 운영/안전 대표로 재직중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컨테이너터미널의 사이버 보안 중요성

PSA는 55년의 역사 속에서 전통적인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에서 IT와 기술중심의 기업으로 변화해왔습니다.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우리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일상적인 위험과 위협은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사이버 영역에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사이버보안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일상 활동—은행 업무, 쇼핑, 소통이 온라인으로 이전함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항만 및 해운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강력한 보호 장치 없이 비즈니스는 비용이 많이 드는 데이터 유출을 겪을 수 있고, 개인은 신원도용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중요한 인프라가 중단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보안은 단순한 기술적 필수 요소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서 신뢰의 기반으로 작용하며, 개인과 조직이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고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첸 가오,
시노트란스코리아쉬핑(주) 사장 및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

약력

첸 가오는 시노트란스코리아쉬핑(주) 사장이자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이다.

중국 최대 포워딩 및 종합물류 기업 시노트란스에 마케팅 담당 사원으로 입사했으며 이후 중국 혼적 화물 익스프레스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했다. 2008년 5월 인사 부문 채용 및 성과관리 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시노트란스 그룹 본사 이사회 사무국 부국장으로 임명됐다. 2016년 9월, 경영진에 합류했고 2021년 8월, 시노트란스 재팬 사장으로 임명됐다.

첸 가오 사장은 Central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세계 최대 인적자원관리 커뮤니티인 SHRM(Society for Human Resources Management)공인 강사 자격과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발급한 이사회 서기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시노트란스코리아쉬핑 사장으로 부임한지 1년만인 2024년 8월,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다.

시노트란스 글로벌 네트워크와 사이버보안 관리

키워드: SINOTRANS, 물류 서비스, 사이버보안

중국의 핵심 국영 종합기업이자 1872년 홍콩에서 설립된 차이나 머천트 그룹(CMG)의 물류 플랫폼인 시노트란스는 CMG 산하 물류사업의 통합 운영 플랫폼 역할을 담당한다. “물류로 산업 발전을 이끈다”는 기업 사명을 바탕으로 당사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종합 물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약 40년 전 시노트란스가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거점이다.

1950년에 설립된 글로벌 기업 시노트란스는 비즈니스 운영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30년 이상 중국-한국 컨테이너 해운 노선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노트란스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응하여 독자적인 폐쇄형 관리 방식을 개발해 왔다.

또한 전 세계 45개국에 걸친 시노트란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당사 직원들은 견고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토대로 중국과 한국 간, 그리고 제3국으로의 다양한 고객 물류 니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



좌장

이채민, (주)파이시스소프트 대표이사

약력

이채민 대표이사(1974년생)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물류시스템공학을(1993년) 전공하였고,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2021년). 토탈소프트뱅크 등 항만 물류 IT 기업에서 20여 년간 글로벌 해운 및 항만물류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및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하였다.

2021년 파이시스소프트를 설립 하여 인공지능과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전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솔루션을 국내외 시장에 개발·공급하며 혁신을 이끌고 있다.



BUSAN INTERNATIONAL PORT CONFERENCE 2025 SECRETARIAT

Tel. +82-51-711-0049 Email. 2025bipc@gmail.com Web. www.bipc.kr